

기혼 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 관련요인

손연정 · 유문숙¹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아주대학교 간호대학¹

= Abstract =

The Related Factors on the Marital Satisfaction in Working Married Women

Youn-Jung Son · Moon-Sook You¹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¹*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cross-sectional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ed factors on the marital satisfaction in working married women in Korea.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567 working married women of over 20 years old in Seoul, Gyeonggi, Chungcheong, Cheonla, and Kyungsang provinc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SPSS win 14.0 program with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an score of sexual life satisf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were respectively 31.54 (range 10.00 to 50.00) and 58.82 (range 25.00 to 90.00). There wer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core of sexual life satisf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age, educational level, marital duration, number of child, type of job, purpose of working, monthly family income, menopause and hypertension. The marital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exual life satisfaction ($r=0.468$, $p<0.001$), stress ($r=-0.345$, $p<0.001$), depression ($r=-0.350$, $p<0.001$), and job satisfaction ($r=0.271$, $p<0.001$).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sexual life satisfaction (adjusted $R^2=0.216$) strongly predicted the marital satisfaction.

Conclusions: Effective sexual counselling program based on psychosocial intervention is need to design for married working women to improve marital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Key Words: women, working, marriage, sexuality, personal satisfaction

서 론

교신저자: 손연정, 충남 천안시 쌍용동 366-1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전화번호: 041-570-2487, 팩스번호: 041-575-9347
E-mail: yjson@sch.ac.kr

원고접수: 2007년 12월 23일, 1차수정: 2008년 1월 28일
2차수정: 2008년 3월 4일, 3차수정: 2008년 3월 14일
원고채택: 2008년 3월 18일

현대사회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가치관의 변화, 부
부중심의 가족형태로의 전환 및 맞벌이 부부가 증가
함에 따라,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단순히 결혼생활의
안정성보다는 부부간의 만족도를 추구하는 쪽으로 관
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거

에는 부부가 전통적 사고의 틀 속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며 결혼생활을 영위하였으나, 현재에는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화와 만족에 비중을 두는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만족도는 개인이 결혼생활 및 배우자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결과사이의 일치감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Cotten 등, 2003).

한편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점차 증가하면서, 직업의 성별 구별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고 남성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졌던 직종들에서도 여성들이 꾸준히 진출하고 있다. 나아가, 결혼이나 출산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여성의 숫자도 점차 증가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4년 기준으로 49.8%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며(통계청, 2005), 2005년도 기혼 여성의 취업률은 50.1%로 2001년 49%를 넘은 뒤 꾸준히 증가하였다(통계청, 2006). 이러한 기혼 여성의 취업은 자아실현 욕구의 충족 및 경제적 자립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반면 직장 및 가정생활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와같이 여성 취업이 증가하면서 현대사회는 점차 성역할에 있어 더욱 유동적이고 가변적이 되었으며, 남편 혼자 수입만으로 경제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더욱 더 자신의 개인적 성취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전통적 가치관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간 역할공유와 평등한 부부관계의 요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아,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에게 역할갈등과 역할수행의 어려움이 발생되므로, 기혼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만족도를 조사하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박은옥, 2001; 이경옥과 김영희, 2003)

지금까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주로 연령, 교육수준, 결혼기간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Saginak과 Saginak, 2005) 및 역할분담, 갈등해결, 부부관계 유형, 의사소통 등을 거론하였고,

이들 중 의사소통이 강력한 변인으로 제시되었다(이경옥과 김영희, 2003).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연구자들마다 차이는 있으나 주로 성생활 만족도와 관련지어 측정되고 있는데, 성생활 만족도란 성관계와 관련된 긍정적, 부정적인 면에 대해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통해 일어나는 감정적 반응으로서, 정서적인 친밀감, 부드러움, 밀착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깊은 감정이 라고 할 수 있다(Tomic 등, 2006). 결혼생활에서 성생활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즉, 부부성을 통해 신체적 만족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만족을 함께 얻기도 한다. 특히 부부중심의 현대사회에서는 성이 상호애정과 신뢰를 나누는 수단이 되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결속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경옥과 김영희, 2003). 반면 성적인 불만족은 개인의 욕구나 우울, 불안, 불면증, 자살에 영향을 주며 결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여 가족의 붕괴로 까지 이어지기도 한다(Lau 등, 2005).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우리나라 이혼 부부들의 이혼 사유 중에서 부부 불화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74.0%),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2.1%에 달했다(통계청, 2002). 이러한 부부갈등은 상당수가 성생활의 불만족과 관련지어져, 부부의 성생활 불만족은 이혼으로까지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Tomic 등, 2006), 최근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경험하는 성생활 만족도와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연구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생활 만족도가 다른 여러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가장 강력한 결혼만족도의 영향요인이라고 하기엔 선행연구들간에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Litzinger와 Gordon, 2005), 여러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이들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기혼 여성의 직장생활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근원인 동시에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는 2004년도 통계청 자료결과, 여성의 유병률

이 24.5%인 반면 남성의 유병률이 17.1%로 여성이 7.4%정도 더 높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생애주기 관점에서 청년기와 중년기를 포함하고 있는 기혼 직장여성의 문제는 직업과 결혼생활, 임신과 출산, 폐경이라는 정상적인 생의 변화 이외에도(Hattar-Pollara 등, 2003) 한국적 특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부담에 따른 문제 등에 의해 전반적 삶의 질에 부정적 결과를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김은희, 2002).

지금까지 국내의 기혼 직장여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결혼만족도 및 성생활 만족도를 전업주부 및 기혼남성과 단순히 비교하거나(이형실, 2001; 서선영과 최혜경, 2004; 조금숙과 조중열, 2004) 인구사회학적 특성만을 위주로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박은옥, 2001; 이경옥과 김영희, 2003; 여정희, 2004). 반면, 인구사회학적 요인 외에 건강관련 특성이나 심리사회적 특성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변인을 고려하는 것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혼 직장여성들의 성생활 만족도 및 결혼만족도 수준을 알아보고, 개인적, 결혼 및 직업관련 특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폐경여부, 체질량지수, 고혈압 및 당뇨 유무와 같은 건강관련 특성, 스트레스, 우울, 직무만족도와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 등의 다양한 차원의 변인들이 성생활 만족도 및 결혼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여러 변인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성생활 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기혼 직장여성들의 전반적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여성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배우자가 있는 기혼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생활 만족도 및 결혼만족도 수준을 살펴보고, 나아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 심리사

회적 요인(스트레스, 우울, 직무만족도), 성생활 만족도 등의 다차원적 변인들을 고려하였을 때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5개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배우자가 있는 기혼 직장여성을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시간적 한계를 고려하여 임의표출하였다. 연구대상자 분포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150명 내외의 범위에서 각 연령대별 30명 이내, 직업은 특정 분야에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과 서비스직 및 사무직에 근무하는 대상자를 비전문직으로 하여 동일한 비율로 포함되도록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연구의 검증력 확보를 위해 Erdfelder 등(1996)에 의해 개발되어 Behavioral Science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G*POWER MS-DOS program을 통해 산출하였으며 G*POWER의 analysis를 근거로 유의수준=0.05, Power=0.80, effect size=0.15 (medium)일 때 multiple linear regression에 필요한 총 대상자 수는 187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일반화 및 결과변수인 결혼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500명 내외의 대상자에 대한 자료수집을 목표로, 연구목적에 동의한 총 577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미비하거나 이혼, 사별, 별거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를 제외한 최종 567명(응답률 98.3%)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3.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지에 참여 동의서를 첨부함으로써 연구 대상자가 자의로 참여하고 원하는 경우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 연구자가 연구목적

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것과 연구 참여자의 익명을 지킨다는 내용으로 서면화된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4.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건강관련 특성·심리사회적 요인, 성생활 만족도 그리고 결혼만족도에 대해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경우 문헌고찰을 통해 기혼 직장여성과 관련있는 변인들로 구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연령, 교육수준, 종교, 결혼관련 특성으로 결혼기간, 총 자녀수, 직업관련 특성으로 직업유형, 현직 근무경력, 근무형태, 취업목적, 가족의 월소득 등을 포함시켰다.

2) 건강관련 특성

건강관련 특성요인으로는 폐경여부와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고혈압과 당뇨 유무를 포함시켰다. 체질량 지수는 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체질량 지수의 분류는 대한비만학회의 제안에 따라 BMI 18.5 kg/m^2 미만은 저체중, $18.5 \sim 22.9 \text{ kg/m}^2$ 은 정상체중, $23.0 \sim 24.9 \text{ kg/m}^2$ 이상인 대상자는 과체중, 25 kg/m^2 이상은 비만으로 규정하였다. 고혈압 및 당뇨 유무는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및 당뇨 진단을 받은 병력을 기준으로 질병 유·무를 측정하였다.

3) 심리사회적 요인

(1) 스트레스

1988년 Frank & Zyzanski에 의해 개발된 BEPSI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를 배종면 등(1996)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scale의 5문항으로 최저 5점에서 최고 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자신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83이었다.

(2) 우울

한홍무 등(1986)에 의하여 표준화된 Beck 등(1961)의 우울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21 문항, 4점 척도로 점수는 0~63점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91이었다.

(3) 직무만족도

Jurik와 Halemba (1984)의 도구를 강성희(1989)가 우리말로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보수, 안정성, 업무량, 복지시설, 직장동료와의 관계, 일에 대한 성취도와 보람, 피로감 등을 묻는 내용의 10문항 5점 척도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76이었다.

4) 성생활 만족도

Derogatis와 Melisaratos가 1979년에 개발한 도구를 장순복(1989)이 번역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성한 성생활만족도 10문항 5점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79이었다.

5) 결혼만족도

Marital Satisfaction Scale (Bowden 등, 1981)을 허윤정(1997)이 한국 문화권에 적합하게 수정한 12개의 긍정 문항과 6개의 부정문항으로 이루어진 총 18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87이었다.

5.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6년 4월부터 2006년 9

월까지였으며 연구의 목적 및 설문지 내용에 대해 훈련을 받은 5명의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이 대기업, 은행, 병원, 학교, 대형 할인마트 등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 직장여성들에게 연구 목적과 연구동의서가 포함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한 후 연구 참여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령과 직업,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할당함으로써 연구대상의 편중을 배제토록 하였으며 회수된 자료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고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는 최종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Win 14.0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 건강관련 특성 · 심리사회적 요인 및 성생활 만족도와 결혼만족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와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independent sample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검정을 이용하였다.

3)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요인, 성생활 만족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변량 분석결과 성생활 만족도 및 결혼만족도와 $p < 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변수들을 독립변수에 포함시키고(Katz, 1999),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후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성 적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40~49세가 전체 567명 중 241명으로 42.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종교는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91명으로 69.0%였고, 교육수준은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결혼 및 직업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 결혼기간은 20년 이상이 166명(29.3%)으로 가장 많았으며, 총 자녀수는 2명이 290명(51.1%)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직업은 비전문직이 전문직에 비해 전체 대상자 중 74.6%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근무형태로는 비교대가, 취업목적은 '경제적으로 가계를 돕기 위해'가 309명(54.5%)로 가장 많은 반면, '자아실현을 위해 근무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9.9%에 불과하였다. 가족 월소득은 300만원대가 51.9%로 가장 많았다(표 1).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 폐경여부에서는 폐경인 사람들에 비해 폐경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472명(83.2%)으로 가장 많았고, 체질량지수는 전체 대상자 567명 중 338명(59.6%)이 정상 범주에 속하였으며, 공유질환으로서 고혈압과 당뇨는 각각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43명(7.6%)과 18명(3.2%)에 불과하였다(표 1).

2.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요인, 성생활 만족도와 결혼만족도 수준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요인 수준을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는 5~25점의 점수범위에서 평균 10.66점이었으며, 우울은 평균 0~63점 범위에서 평균 11.34점으로 경증 우울(Beck 등, 1961)에 해당하였고, 직무만족도는 10~50점의 점수범위에서 31.08점으로 나타났다. 성생활 만족도는 10~50점의 점수범위에서

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 (N=567)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연령	<30	62	10.9
	30~39	171	30.2
	40~49	241	42.5
	≥50	93	16.4
종교	유	391	69.0
	무	176	31.0
교육수준	중졸 이하	78	13.7
	고졸	247	43.6
	대졸 이상	242	42.7
결혼기간	10년 미만	150	26.5
	10~15년	138	24.3
	15~20년	113	19.9
	20년 이상	166	29.3
총 자녀수	0명	60	10.6
	1명	91	16.0
	2명	290	51.1
	3명 이상	126	22.2
직업	전문직	144	25.4
	비전문직	423	74.6
근무형태	교대	139	24.5
	비교대	428	75.5
취업목적	생계를 위해	132	23.3
	가계를 돕기 위해	309	54.5
	자아실현위해	113	19.9
	기타	13	2.3
가족 월소득(만원)	<100	27	4.8
	100~200	96	16.9
	200~300	150	26.5
	≥300	294	51.9
폐경여부	폐경	95	16.8
	폐경전	472	83.2
체질량지수	저체중	32	5.6
	정상	338	59.6
	과체중	135	23.9
	비만	62	10.9
고혈압	유	43	7.6
	무	524	92.4
당뇨	유	18	3.2
	무	549	96.8

평균 31.54점이었고, 결혼만족도는 18~90점의 점수 범위에서 평균 58.82점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직무만족도, 성생활 만족도, 결혼만족도 수준 (N=567)

특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스트레스	10.66	3.22	5.00	25.00
우울	11.34	9.14	0.00	63.00
직무만족도	31.08	5.54	10.00	49.00
성생활만족도	31.54	5.55	10.00	50.00
결혼만족도	58.82	11.79	25.00	90.00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와 결혼만족도의 차이

인구사회학적·건강관련 특성 중에서 연령, 교육수준, 결혼기간, 총 자녀수, 직업형태, 취업목적, 가족 월소득, 폐경여부, 고혈압은 성생활 만족도와 결혼만족도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으며, 근무형태는 결혼만족도에서만, 체질량지수와 당뇨는 성생활 만족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종교는 성생활 만족도와 결혼만족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먼저, 성생활 만족도의 경우는 30대 미만($p < 0.001$), 대졸 이상($p < 0.001$), 결혼기간이 10년 미만과 15~20년 미만이 20년 이상인 그룹에 비해($p < 0.001$), 총 자녀수가 0명인 경우($p = 0.040$), 전문직 여성($p < 0.001$), 취업목적이 자아실현인 경우($p = 0.011$), 가족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p < 0.001$), 폐경 전($p < 0.001$)이면서 저체중($p = 0.009$)인 여성이, 고혈압($p < 0.001$) 과 당뇨($p = 0.018$)가 없는 여성이 다른 그룹에 비해 성생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표 3).

결혼만족도의 경우 30대 미만($p < 0.001$), 대졸 이상($p < 0.001$), 결혼기간이 10년 미만($p < 0.001$), 총 자녀수가 0명인 경우($p = 0.008$), 전문직에 종사하면서($p < 0.001$), 비교대 근무 여성이($p = 0.001$), 취업목적이 자아실현 혹은 가계를 돕기 위한 경우가 생계를 위한 경우보다($p < 0.001$), 가족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p < 0.001$), 폐경 전($p = 0.001$)이면서 고혈

표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 및 결혼만족도의 차이

(N=567)

특성	구분	실수	성생활 만족도				결혼 만족도			
			Mean	SD	t or F (Scheffe)	p	Mean	SD	t or F (Scheffe)	p
연령	<30	62	34.16	6.03	7.970	<0.001	67.66	13.20	16.994	<0.001
	30~39	171	31.71	5.11			59.60	10.81		
	40~49	241	31.42	4.98			57.21	11.07		
	≥50	93	29.82	6.68			55.59	11.50		
종교	유	391	31.51	5.59	.202	0.840	58.94	11.74	-0.371	0.711
	무	176	31.61	5.50			58.55	11.92		
교육수준	중졸 이하	78	29.50	5.62	12.995	<0.001	53.07	8.43	36.613	<0.001
	고졸	247	30.98	5.29			56.22	10.37		
	대졸 이상	242	32.77	5.53			63.28	12.48		
결혼기간	10년 미만	150	32.57	5.02	6.098	<0.001	63.17	12.30	14.536	<0.001
	10~15년	138	31.71	5.11			58.79	11.38		
	15~20년	113	32.11	5.54			59.08	10.42		
	20년 이상	166	30.09	6.10			54.68	11.14		
총 자녀수	0명	60	33.42	6.06	2.789	0.040	63.15	14.59	4.010	0.008
	1명	91	31.68	4.16			60.10	10.74		
	2명	290	31.17	5.37			57.74	11.16		
	3명 이상	126	31.42	6.41			58.28	12.00		
직업	전문직	144	33.19	5.50	-4.192	<0.001	62.87	12.04	-4.876	<0.001
	비전문직	423	30.98	5.46			57.43	11.38		
근무형태	교대	139	31.00	5.450	-1.328	0.185	55.96	10.85	-3.302	0.001
	비교대	428	31.72	5.58			59.74	11.94		
취업목적	1.생계를 위해	132	30.40	5.90	3.722	0.011	55.34	10.63	6.327	<0.001
	2.가계를 돕기 위해	309	31.57	5.15			59.36	11.73		
	3.자아실현위해	113	32.75	6.04			61.57	12.82		
	4.기타	13	31.92	5.07			57.46	6.20		
가족월소득 (만원)	<100	27	27.15	6.14	9.887	<0.001	51.85	7.68	17.048	<0.001
	100~200	96	30.44	5.04			54.19	10.58		
	200~300	150	31.32	4.90			57.06	10.85		
	≥300	294	32.42	5.73			61.86	12.01		
폐경여부	폐경	95	29.35	5.87	-4.289	<0.001	55.19	10.51	-3.296	0.001
	폐경전	472	31.99	5.39			59.54	11.90		
체질량지수	1.저체중	32	32.97	7.39	3.900	0.009	63.00	13.94	2.194	0.088
	2.정상	338	31.97	5.30			59.15	11.95		
	3.과체중	135	30.92	5.61			57.67	11.42		
	4.비만	62	29.86	5.33			51.34	10.03		
고혈압	유	43	28.58	5.96	-3.679	<0.001	54.23	10.32	-2.669	0.008
	무	524	31.79	5.45			59.20	11.83		
당뇨	유	18	28.50	7.92	-2.373	0.018	55.83	13.02	-1.092	0.275
	무	549	31.64	5.44			58.92	11.74		

압이 없는 여성(p=0.008)의 결혼만족도가 다른 그룹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표 3).

4. 심리사회적 요인(스트레스, 우울, 직무만족도)과 성생활 만족도,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요인인 스트레스, 우울 및 직무만족도와 성생활 만족도 및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4), 스트레스($r=-0.189, p<0.001$) 및 우울 정도($r=-0.262, p<0.001$)가 낮을수록, 직무만족도($r=0.241, p<0.001$)가 높을수록 성생활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며, 스트레스($r=-0.345, p<0.001$) 및 우울 정도($r=-0.350, p<0.001$)가 낮을수록, 직무만족도($r=0.271, p<0.001$)와 성생활 만족도($r=0.468, p<0.001$)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5. 대상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변량 분석 결과, 성생활 만족도와 결혼만족도에 대해 $p<0.0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던 제 변수들 즉 연령(0=20대, 1=30대, 2=40대, 3=50대 이상), 교육수준(중졸=0, 고졸=1, 대졸이상=2), 결

혼기간(0=10년 미만, 1=10~15년, 2=15~20년, 3=20년 이상), 총 자녀수(0=0명, 1=1명, 2=2명, 3=3명 이상), 직업(비전문직=0, 전문직=1), 근무형태(비교대=0, 교대=1), 취업목적(0=생계를 위해, 1=가계를 돕기 위해, 2=자아실현 위해, 3=기타), 가족 월소득(0=100만원 미만, 1=100~200만원 미만, 2=200~300만원 미만, 3=300만원 이상), 폐경(0=폐경, 1=폐경전), 체질량지수(0=저체중, 1=정상, 2=과체중, 3=비만), 고혈압(0=없음, 1=있음), 당뇨(0=없음, 1=있음)는 가변수 처리하고, 스트레스, 우울, 직무만족도, 성생활만족도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 전에 실시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가 0.905~0.980으로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184~2.876으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았고, Durbin Watson 검정결과는 1.778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성이 없었고, 상태지수(Condition index)는 3.092~20.449의 범위로서 30미만으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성생활 만족도, 스트레스, 연령, 가

표 4. 심리사회적 요인, 성생활 만족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N=567)				
변수명	스트레스 r(p)	우울 r(p)	직무만족도 r(p)	성생활 만족도 r(p)
성생활 만족도	-0.189 (<0.001)	-0.262 (<0.001)	0.241 (<0.001)	-
결혼만족도	-0.345 (<0.001)	-0.350 (<0.001)	0.271 (<0.001)	0.468 (<0.001)

표 5. 대상자의 결혼만족도 영향요인

(N=567)							
영향요인	B	표준화된 β 계수	t	p	수정된 R^2	F	p
성생활 만족도	0.704	0.333	8.914	<0.001			
스트레스	0.163	-0.166	-3.694	<0.001			
연령	0.052	-0.170	-4.686	<0.001	0.339	48.187	<0.001
가족 월소득	0.490	0.112	2.970	0.003			
직무만족도	0.082	0.086	2.222	0.027			
우울	0.059	-0.090	-1.967	0.040			

투입변수: 연령, 교육수준, 결혼기간, 총 자녀수, 직업, 근무형태, 취업목적, 가족 월소득, 폐경, 체질량지수, 고혈압, 당뇨, 스트레스, 우울, 직무만족도, 성생활 만족도

족 월소득, 직무만족도, 우울의 순서로 결혼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은 결혼만족도의 33.9%를 설명하고 있으며($F=48.187, p<0.001$), 이 중 성생활 만족도($t=8.914, p<0.001$)가 결혼만족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고 찰

전통적으로 기혼 여성들은 가정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강조하여 왔으나 오늘날 산업구조가 변하고, 고학력의 여성이 증가하면서 결혼 후에도 계속 직업을 유지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개인의 결혼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즉 가정의 중요성이 가족의 형태보다 가족의 기능, 가족구성원 간의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으로 옮겨가면서 한 가족 안에서 부부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었다(김은희, 2002). 부부간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들어 특히 서로의 애정을 표현하고 촉구하는 수단인 성생활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부부간의 성생활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부부간의 성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에 대한 불만과 좌절감으로 인해 이혼과 같은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한다(김선아 등,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여성의 취업 및 이혼율과 관련하여, 기혼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성생활 만족도 및 결혼만족도 수준을 알아보고,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관련 특성, 심리사회적 요인 및 성생활 만족도 등의 다차원적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요인이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느라 여성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기혼 직장여성들의 심리사회적 요인 및 성생활 만족도와 결혼만족도 수준을 살펴본 결과 먼저, 스트레스 수준은 평균 10.66점(표준편차 3.22)으로 최대 25점의 점수범위 내에서 중앙값보다는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 여성 자신의 취

업으로 인해 가계 및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은 긍정적 측면의 사고와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도 점수가 평균 점수보다 높은 31.08점(표준편차 5.54)이었다는 것과 관련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연구가 보고되지 않아 직접적 비교는 어려우며, 조금숙과 조중열(2004)이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취업주부에서 부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는 결과와 기혼 직장여성은 남성에 비해 부부관계와 부모역할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며, 심리적 복지수준도 낮았다(이형실, 2001)는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충적인 면이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여성 및 남성 전업주부, 미혼 직장 여성, 남성 직장인 등의 다양한 그룹과의 비교를 통해 각 집단에 따른 스트레스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일은 정신건강 증진 및 다양한 복지정책 개발에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 평균점수는 11.34점(표준편차 9.14)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Beck 등(1961)이 구분한 우울점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경증 우울에 해당하는 것으로, 김선아 등(2006)이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을 측정한 결과인 8.5점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Hashmi 등(2007)이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기혼 직장여성과 전업주부의 우울을 측정했을 때, 기혼 직장여성의 우울 수준이 12.36점, 전업주부가 15.73점이었다는 결과와, 이수영과 조옥귀(2000)의 연구에서 취업주부의 우울정도는 전업주부에 비해 훨씬 낮았다고 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직업을 가진 여성의 경우, 가정과 직장의 이중부담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의 직장에서 남편이나 가정에 대한 불만 및 갈등을 상쇄시킬 수 있고 직업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태도로 직업활동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발전을 시도하려는 태도가 많은 반면, 전업주부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므로 자아 실현에 대한 수용수준이 낮아지므로(김선아 등, 2006)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들 두 집단에 대해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반복측정해 볼 필요

가 있었다. 성생활 만족도 및 결혼만족도 수준은 각각 최대 50점과, 90점 만점에 평균 점수 31.54점과 58.82점으로 중앙값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나, 장순복 등(1998)의 연구에서 기혼 여성의 성만족도는 평균 점수에 해당하였다는 결과와, 홍숙선과 조성호(2003)가 기혼 여성 전체의 결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업주부와 만나질 근무 여성에 비해 종일 근무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60.26점으로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 및 결혼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30대 이하일수록,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일수록, 결혼기간은 10년 미만이고, 총 자녀수는 0명인 여성이 성생활 만족도와 결혼만족도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또한 전문직에 종사하며, 취업목적이 자아실현인 경우가, 가족의 월소득이 많을수록, 폐경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일수록, 고혈압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성생활 만족도와 결혼만족도 모두가 더 높았다. 성만족도의 경우 선행연구들(장순복 등, 1998; Lau 등, 2005)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성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는데, 연령, 결혼기간 및 총 자녀수는 상호 관련있는 변수들로서, 먼저 성행동 측면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생물학적인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성관계 빈도 또한 감소하는 것과 연관있다. 즉, 어린 자녀 혹은 돌볼 자녀수가 많은 경우 부부가 자녀를 돌보는 데 많은 노력을 투여하게 되고, 따라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므로 성관계 빈도의 감소로 인해 성생활 만족도가 감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관련 특성으로서 폐경과 고혈압은 성관계시 질분비 감소 및 혈관장애에 기인하여 성적 쾌감이 줄어드는 것(여정희, 2004)과 관련있다. 한편, 성역할의 측면에서는 최근 주부의 취업이 증가되면서 젊은 세대와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 여성일수록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인식전환으로 인해, 전통적인 성 역할 분담양상이 다소간 완화되므로써 남편과 아내가 직업인으로서의 생활을 서로 공유하

고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부부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더욱 애정적인 관계로 변화된 것이 성생활 만족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김은희, 2002; Litzinger와 Gordon, 2005). 결혼만족도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초기일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전문직에 종사하며, 폐경전 여성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는 기존 연구결과들(홍숙선과 조성호, 2003; 이인숙, 2002; Barnett과 Gareis, 2002; 박은옥, 2001)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의 증가가 직업과 소득을 연관시키는 매개변수로서 결혼만족도의 증가와 상관성을 가지며, 가족의 월소득이 낮은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을 더 많이 겪게 되어(Barnett과 Gareis, 2002) 결혼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심리사회적 요인인 스트레스, 우울 및 직무만족도 모두 성생활 만족도와 결혼만족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생활 만족도와 결혼만족도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0.468$, $p<0.001$).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및 심리사회적 요인과 성생활 만족도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기혼직장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있어, 성생활 만족도의 상대적 영향력이 어떠한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 성생활 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변수로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 결과들(이경옥과 김영희, 2003; Ji와 Norling, 2004; Tomic 등, 2006)을 강력히 뒷받침해 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성생활 만족여부는 결혼만족도와 같은 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부부상담 현장에서는 성적갈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교육시키는 것과 함께 개인의 정서적 상태 및 환경적 요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부부간의 친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심리사회적 중재 방안들이 함께 모색되어야 함(Bodenmann 등, 2006)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성생활 만족은 여성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건강관리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이며, 여성의 성에 관한 문제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여성들의 주관적 성생활 만족도를 다각적으로 측정하므로써 결혼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 또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횡단적 조사연구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으므로 향후 전향적 연구를 통해 전업주부, 기혼 및 기혼 남녀 직장인들을 폭넓게 조사하여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기혼직장 여성의 성생활 만족도 및 결혼만족도 수준을 살펴보고, 성생활 만족도를 포함한 다차원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시도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지역에 거주하는 기혼 직장여성 5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이 미비한 10부를 제외한 최종 567부가 분석대상이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성생활 만족도 및 결혼만족도의 차이에서는 먼저, 성생활 만족도의 경우 30대 미만($p<0.001$), 대졸이상($p<0.001$), 결혼기간이 10년 미만과 15~20년 미만이 20년 이상인 그룹에 비해($p<0.001$), 총 자녀수가 0명인 경우($p=0.040$), 전문직 여성($p<0.001$), 취업목적이 자아실현인 경우($p=0.011$), 가족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p<0.001$), 폐경 전($p<0.001$)이면서 저체중($p=0.009$)인 여성, 고혈압($p<0.001$)과 당뇨($p=0.018$)가 없는 여성이 성생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결혼만족도의 경우 30대 미만($p<0.001$), 대졸이상($p<0.001$), 결혼기간이 10년 미만($p<0.001$), 총 자녀수가 0명인 경우($p=0.008$), 전문직($p<0.001$), 비교대 근무여성

($p=0.001$), 취업목적이 자아실현 혹은 가계를 돕기 위한 경우($p<0.001$), 가족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p<0.001$), 폐경 전($p=0.001$)이면서 고혈압이 없는 여성($p=0.008$)이 결혼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심리사회적 요인과 성생활 만족도 및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에서는 스트레스($r=-0.345$, $p<0.001$)와 우울정도는 낮을수록($r=-0.350$, $p<0.001$), 직무만족도($r=0.271$, $p<0.001$)와 성생활 만족도는 높을수록($r=0.468$, $p<0.001$), 결혼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를 결혼만족도로 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생활 만족도, 가족 월소득 및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연령 및 우울은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들은 결혼만족도의 약 33.9%를 설명하고 있었고, 그 중 성생활 만족도가 가장 강력한 영향변수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기혼직장 여성의 성생활 만족도는 결혼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임과 동시에, 두 변수 모두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심리사회적 요인 등의 여러 다차원적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혼 직장여성들의 성생활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실제적 프로그램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고, 향후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가 전업주부와 기혼 직장여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보므로써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강성희. 취업주부의 직무만족도와 역할갈등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김선아, 남경아, 정향인. 기혼 취업여성의 우울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2006;15(2):179-186
- 김은희.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맞벌이 남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 2002;1(10):99-199
- 박은옥.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01;7(4):508-517

- 배종면, 정은경, 유태우, 허봉렬, 외래용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연구. 가정의학회지 1996;13(10):809-820
- 서선영, 최혜경. 한국 기혼남녀의 부부간 사랑과 성생활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04;9(3):181-200
- 여정희. 중년여성의 폐경관리와 결혼만족도,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004;34(2):261-269
- 이경옥, 김영희. 기혼여성의 성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003;41(7):39-58
- 이수영, 조옥귀.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성역할 정체감과 우울 수준의 비교. 경남대학교 인문논집 2000;13(1):1-13
- 이인숙. 기혼여성의 우울과 배우자지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02;8(4):482-493
- 이형실.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의 가족 및 직업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01;19(2):143-152
- 장순복. 자궁절제술 부인의 성생활 만족에 관한 요인분석. 대한간호학회지 1989;19(2):160-172
- 장순복, 강희선, 김숙남. 기혼여성의 성만족. 대한간호학회지 1998;28(1):201-209
- 조금숙, 조중열.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여성 2004;9(3):27-41
- 통계청. 2002년 혼인 및 이혼사유 통계연보. 서울, 2002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서울, 2005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서울, 2006
- 한홍무, 염태호, 신영우, 김교현, 윤도준 등. Beck Depression Inventory의 표준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1986;25(3):487-502
- 홍숙선, 조성호. 기혼여성의 결혼만족. 성평등 연구 2003;7:1-7
- 허윤정. 부부관계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Barnett RC, Gareis KC. Full time and reduced hours work schedules and marital quality. Work Occup 2002;29(3):364-379
- Beck AT, Ward CH, Mendelson M, Mock J, Erbaugh J.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 Gen Psychiatr 1961;4:561-571
- Bodenmann G, Ledermann T, Blattner D, Galluzzo C. Associations among everyday stress, critical life events, and sexual problems. J Nerv Ment Dis 2006;197(7):494-501
- Bowden SR, Frazier LP, Roach AG.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 Marriage Fam 1981;43:537-545
- Cotten SR, Burton RP, Rushing B. The mediating effects of attachment to social structure and psychosocial resourc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quality and psychosocial distress. J Fam Issues 2003;24(4):547-577
- Derogatis LR, Melisaratos N. The DSFI: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sexual functioning. J Sex Marital Ther 1979;5:244-281
- Erdfelder E, Faul F, Buchner A. GPOWER: A general power analysis program.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1996;28:1-11
- Frank SH, Zyzanski SJ. Stress in the clinical setting: the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J Fam Pract 1988;26:533-539
- Hashimi HA, Khurshid M, Hassan I. Marital adjustment, stress and depression among working and non working married women. Internet J Med Update 2007;2(1):1-11
- Hattar-Pollara M, Meleis AI, Nagib H. Multiple role stress and patterns of coping of Egyptian women in clerical jobs. J Transcult Nurs 2003;14(2):125-133
- Ji J, Norling AM. Sexual satisfaction of married urban Chinese. J Dev Soc 2004;20(1):21-38
- Jurik NC, Halemba GJ. Gender, working conditions and the job satisfaction of women in a non-traditional occupation: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in men's prisons. Sociol Q 1984;25(4):551-566
- Katz MH. Multivariable analysis (a practical guide for clinici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nited Kingdom, 1999:66
- Lau JT, Kim JH, Tsui HY. Mental health and lifestyle correlates of sexual problems and sexual satisfaction in heterosexual Hongkong Chinese population. Urology 2005;66:1271-1281
- Litzinger S, Gordon KC. Exploring relationships among communication, sexual satisf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J Sex Marital Ther 2005;31:409-424
- Saginak KA, Saginak MA. Balancing work and family: equity, gender,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2005;13(2):162-166
- Tomic D, Gallicchio L, Whiteman MK, Lewis LM, Langenberg P et al. Factors associated with determinants of sexual functioning in midlife women. Maturitas 2006;53:144-157